

고려 500여년 역사 가슴 뭉쿨

500여 불자 영통사 복원 3주년 기념 및 성지순례 원만성취 기원법회 봉행



대각국사 비를 관람하는 순례자들.



개성 영통사 전경.



선죽교를 구경하는 순례자들.

천태종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현장

6월 8일 오전 7시 30분 입진각. 분단후 처음으로 열린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길에 동참한 500명의 불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받느라 한창이다.

7시 50분, 파주 도라산 남측 CIQ(출입관리사무소)에 도착한 뒤 30분간 입국수속과 세관검사를 마친 뒤 8시 20분경 북한을 향해 출발했다.

비무장 지대를 5분 정도 통과하니 곧바로 북측 CIQ가 나온다. 남과 북은 느낌으로는 100여km 떨어진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다시 30분간 입국수속과 세관검사를 거쳤다.

버스는 개성공단을 거쳐 북한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개성시내로 접어들었다. 무언가 습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성은 그것만으로도 속살을 전부 드러낸 듯 했다. 개성주민들의 웃차림과 일상 그 자체로도 북한의 실상이 피부로 절감된다.

시내를 빠져나와 나무 한그루 없이 특별한 산등성이를 뚫고 돌아 아름다운 호수를 사

의 교육시설이었다. 대성전과 명륜당 등 10여 개의 건물이 남아 있었다.

옆에 붙어 있는 개성역사박물관은 백열등 밑에 북한의 국보급 유물이 전시돼 보안이 위태로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여성 해설사의 유창한 설명을 곁들여 다채로운 유물과 유적을 전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고려박물관에는 야외에도 북한의 국보유적 제 139호인 현화사 7층석탑등을 전시해 놓았다.

또 충절의 상징인 선죽교와 표충비는 순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화재였다. 포은 정몽주의 선혈이 서려 있는 북한의 국보유적 159호 선죽교는 1216년에 건립된 선죽교. 정몽주의 피살 이후 선죽교로 부르게 됐다는 안내문이 있다. 지금도 혈흔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개성의 건축적조예술의 우수성이 돋보이는 듯 했다.

시내를 관통하며 고려 초에 건립된 남대문은 개성성 내성의 정남문. 얼핏 보니 문루에 연복사 종이가 지금도 걸려 있었다. 한편 조선 중기의 한 기록에는 개성시내에

고려 최고 교육시설인 성균관 10여 채 건물 남아 백열등 조명으로 전시된 국보 유창한 해설에 위안 충절의 상징인 선죽교의 석조건축 우수성에 감탄

이에 아스라이 보이는 황진이와 서경덕의 묘를 보며 한동안 달리니 영통사가 나온다. 오전 10시, 순례객들은 영통사 보광원에 들러 참배를 한 뒤 개성 영통사 복원 3주년 기념 및 성지순례 원만성취 기원 남북공동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영통사 성지순례를 통해 한국불교가 민족과 역사 앞에 해야 할 방향을 성찰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성지순례는 깊은 신심과 민족사랑 그리고 민족화해의 대장 불사에 동참하는 공덕을 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은 "남한의 불교도들이 영통사로 온 것을 열렬히 환영 한다"며 "영통사를 민족화합과 통일일의 성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법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영통사의 유적을 돌아본 뒤 개성시내로 향했다. 시내 개성서관 식당에서 점심공양을 마친 참가자들은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과 고려박물관을 찾았다. 개성시 부산동에 있는 고려박물관에서는 고려 475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1000여년 수령의 아름다운 은행나무가 인상적인 성균관은 1089년 설립된 고려 최고

유명한 사찰만도 성내에 300곳이 있었고, 현재 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도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 이후 궁궐 주변과 송악산 기슭에 25개의 절을 지었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찰이 폐사돼 남아 있는 사찰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했다.

오후 4시 20분 또다시 세관 및 출국수속을 마친 순례자들이 북측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과했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하니 오후 6시 30분이다.

송도3절로 유명한 박연폭포를 못보고 온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그래도 하루 개성순례는 내용이 풍부해서인지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평이 많았다.

서울에서 주변에 이만한 관광지도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와야 할까. 좀더 시설을 보완해 1박2일 코스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더욱 값진 순례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편 북한측 민족화해협의회 리창덕 부장은 "북한은 남측 천태종의 성지순례만 적극 협조하고 모든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며 "현대나 롯데를 통한 개성관광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성/글·사진=김원우 www.kim@buddhapia.com

얼굴에 분 칠 한 번 안 하셔도, 화려한 장신구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지 않으셔도, 언제나 맑은 빛을 발하시는 단아한 모습처럼 스님의 시에는 그 어떤 치장도 보이지 않는다. 습작기 문학도들이 흔히 쓰는 시학 기법등의 기교도 없다. 오로지 정신, 활일의 경지에서 나오는 천상의 언어들만이 있을 뿐이다.

다 쓰고 난 후 갖고 다듬는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무너가 예행연습 없이 글을 하여 중생의 한을 풀어주듯, 가슴속에 가득 담긴 불심의 언어들을 일필휘지로 풀어내시는데 있다. 막힘없이, 물 흐르듯 읽히시!!



물질만능주의에 찌들고, 지쳐가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심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집을 꾸미게 되었다는 보덕스님, 지리산 함양에 위치한 견불사에 오늘도 한결같이 오가는 불자들에게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한다.

정심보덕스님 저음
신국판 양장본 / 119쪽 / 값 10,000원
판매처 055)962-3931 / Fax 055)962-3920 지리산 견불사(실상선원)

※ 인터넷 서적 운주사 등 불교 인터넷 사이트 절찬리 판매중

백련앞에 청개구리

정심 보덕스님 詩集

천정무구의 부처님의 귀한 법문(백련)을 경청할때는 부처가 되었다가 돌아서면 중생되는 불자의 마음 자리(청개구리)를 시로 표현한 보덕스님의 명상시집.

